

위안부 피해자 문제, 작품으로 다뤄본다

오늘 전북대 박물관서 특별전... 강제 동원부터 세계적 인권문제로 대두되기까지의 과정 풀어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주제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예술작품과 주요 사료가 함께 전시되는 특별한 기획전이 전북대 박물관에서 열린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립여성사전시관)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주관하는 이번 특별기획전은 '하나의 진실, 평화를 향한 약속'을 주제로 서울과 전주, 대전, 대구 등에서 차례로 열린다.

서울에서 전주로 옮겨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전북대 박물관 기획전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광복 72주년을 즈음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여성 인권의 중요성을 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 동원부터 위안소 생활, 국내 귀향, 이후 세계적 인권 문제로 대두되기까지 과정을 주요 역사 자료와 작가들의 예술언어로 재현된 작품으로 함께 풀어낸다.

1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수면위로 떠오르다'는 전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주요 뉴스 및 영상을 모은 미디어홀라주와 피해자들 모습을 담은 사진작품을 통해 역사가 아니라 오늘의 문

제로 살아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짚어본다.

2부 '낯선 곳 전쟁터의 위안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동원 관련 각종 사료 및 피해자들의 실제 증언내용, '위안소' 재현물 등이 전시되며, 제국주의와 전쟁의 비극을 고찰하는 국내외 작가들의 회화, 콜라주, 설치작품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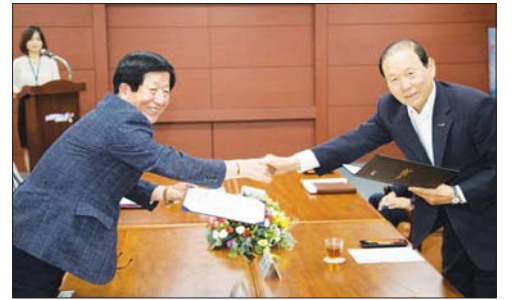
3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세계 여성인권의 도화선이 되다'는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투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활동상을 전시하고, UN 결의문, 유네스코 관련 자료 등전

세계의 움직임도 함께 전한다.

이번 특별기획전에 참여한 국내외 작가는 총 10명으로 위안부 설치미술 작업으로 일찍이 화제를 모은 이창진 작가, 네덜란드 출신 사진작가 안 배닝 등이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특별기획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애환을 역사적 자료뿐 아니라 국내외 작가들의 예술언어로 함께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층 풍부한 전시가 될 것"이라며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관련해 올바르게 역사를 인식하고 한일 양국의 문제를 넘어 인류 보편의 여성인권 문제로서 해결을 모색하는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이은결 매직&일루션' 공연 공동 추진 군산시-국인산업, 기업메세나 협약 체결 공연은 26일 오후 군산예술의전당서 개최

군산시와 (주)국인산업은 18일 기획 공연 공동추진 협약을 통해 '이은결의 매직&일루션' 공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이루어진 결실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에게는 고품격의 공연을 제공하고 시는 예산절감, 기업은 예술문화 활동지원에 동참하며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는 윈-윈(win-win) 전략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동안 군산예술의전당은 대규모 공연예술작품인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 메세나를 통해 공연을 유치해왔다. 2016년의 경우 국민산업과 유니버설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를 공동 기획하였으며 OC(주)후원으로 '조수미 콘서트', (주)군산도시가스사의 후원으로 '뮤지컬 브로드웨이42번가'를 유치한 바 있다.

한편 (주)국민산업의 후원으로 추진하게 된 '이은결의 매직&일루션'은 다년간 콘서트 경험을 바탕으로 베스트 퍼포먼스만을 선정하여 구성하였으며 스피디하고, 다이나믹한 스타일로 각각의 에피소드를 유니버설형식으로 진행하는 즉흥성이 가미된 콘서트형식의 공연이다. 특히 이은결만의 독특한 연출이 돋보이는 '일루션 퍼포먼스'는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비주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공연은 8월 26일(수) 오후 3시, 7시 2회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며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으로 판매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arts.gunsa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장 현 기자

올 여름엔 태권도원으로

20일부터 썸머 크러쉬 페스티벌
볼거리·즐길거리 다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오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시원한 물놀이와 태권도를 활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태권도원 Summer CRUSH festival'을 운영한다.

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태권도원을 찾는 방문객을 위해 '태랑마당(물놀이 이벤트)'과, '진진마당(체력이벤트)', '백운도사마당(공연이벤트)' 등 태권도원 T1경기장과 국립태권도박물관 일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태랑마당'에서는 아와 물놀이장과 아로마테라피(버블풀장, 수중 축구, 물총·물풍선놀이, 오펙포 수련체험 등 다양한 물놀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진진마당'에서는 도전 격파왕과 우렁찬 기합소리, 캐리터 타투, 전통놀이 등 태권도와 전통놀이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백운도사마당'에서는 수상 림보 게임과 함께 주말에는 대형팔뚝수만들기와 인형극 등 재미있는 공연과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무주반딧불 축제와 열리는 기간(8월26일~9월3일)중 주말에는 축제와 연계하여 '미션! 반딧불이 트리아트를 찾아라'와 '반딧불 퍼포먼스'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태권도원 Summer CRUSH festival'과 함께 태권도원에서는 태권도 시범공연이 매일 2회(오전11시, 오후 14시) 펼쳐지고,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의 기획전시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본선 진출작 발표

국립무형유산원, 9편 공개

국내 진출작에 한국 전통목조각 '꼭두' 소재로 한 '아름다운 날'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이 주최하고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김건)가 주관하는 '제4회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국제 경쟁부문 본선 진출작 9편이 공개됐다.

우수한 영상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국제 경쟁부문 작품 공모에는 총 1,048편이 출품됐다.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으로 10개국(다수 국가 제작 포함) 9편이 선정됐다.

국가별 진출작 수를 살펴보면, 아시아 작품 2편을 제외한 모든 작품은 유럽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무형유산의 영상·영화 작업에 대한 대륙별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본선 진출작 9편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매 사냥, 스페인의 전통춤 플라멩코, 이탈리아 사르데냐 지방의 카니발, 핀란드의 사냥 전통 등 세계 각국의 무형유산에 대한 다채로운 시선들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통목조각인 '꼭두'를 소재로 한 장윤정 감독의 '아름다운 날'은 한국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본선 진출작으로 뽑혔다. 또한 일본 헤너(아마)를 포로 투갈인의 시선으로 담은 클라우디아 바레조 감독의 '아마상'도 시선을 끈다.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부문 임에도 불구하고 131:1의 경쟁률을 기록하



장윤정 <아름다운 날>

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만, 유럽에 비해 아직은 아시아권과 한국에서의 무형유산 소재로 한 영화제작이 활발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이번 국제경쟁 심사를 통해서 앞으로 무형유산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 제작이 이루어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축제 기간 중 본선 심사(심사위원 추가)를 거쳐 최우수작품상과 우수작품상을 가리게 된다. 최우수 작품상에는 1,000만원, 우수 작품상에는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본선 진출작 목록은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홈페이지(http://iff.i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31일부터 유산원에서 관람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풍수명인 김상휘 작가 초청 강연

전북소설가협회(회장 정영신)는 22일 오후 2시 전북문화관 대강당에서 풍수명인 김상휘 소설가(사진)를 초청해 '풍수로 바라 본 전주의 역사'라는 주제로 문학 강연을 연다.

이날 강연에서 김상휘 소설가는 역사적인 내용들과 풍수사상을 바탕으로, 소설의 문학적인 흥미를 가미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 지역은 풍수지리적으로 '금계폭란' 형이어서 명당지로 꼽힌다는 것. 김 강연자는 이곳을 근간으로 건립은 후백제의 부활을 꿈꾸었고, 1392년 태조 이성계는 조선 건국했으며, 녹두 전봉준 장군은 1894년 갑오년에 각각 대꿈을 꾸었음을 실례로 제시한다.

/정해은 기자



전통문화전당-KBS 전주방송 업무 협약

한국전통문화전당(임장 오태수)과 KBS전주방송총국(총국장 함형진)은 18일 KBS전주방송총국 7층 대회의실에서 전통문화 협력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과 방송 등 양 기관의 전통문화 협력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 제작 및 방송, 상호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정보와 콘텐츠의 제공 및 활용,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실시하는 공연 및 전시 등에 대한 홍보 및 방송,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들에 대해 상호 적극 지원키로 했다.

오태수 원장은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고, 전당과 KBS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형진 총국장은 "KBS와 전당은 전통문화 콘텐츠를 전주 시민들에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 양 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서로 협력하며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문의전화 : 063) 453-0854 / 010-6710-0854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